

2026년 9월 25일(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교회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
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노래하나이다 (시편 65:11~13)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송가 66장(통20) ♪ 다 감사드리세 1, 3절 / 다같이

1.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3.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 가족기도문 / 온가족

인도자 :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수고 끝에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
온 가족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 족 :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채워 주신 손길을 기억하며,
이 예배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인도자 : 풍성한 결실 앞에서 우리의 수고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가 족 :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인도자 :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나누는 대화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 족 :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 이 추석 명절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가정, 서로를 품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신명기 26:8-11 / 다같이

⁸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⁹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¹⁰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¹¹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 말씀 / 인도자

추석 상 위 음식과 햇과일을 보면, 한 해 동안의 삶을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상 위에 놓인 것들은 우리 손으로만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둘러앉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 소중한 만물을 들고 나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손에 들려질 것은 소산이지만, 그 예배 속에 담기게 될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에 담긴 세 가지 마음을 오늘이 시간 우리 가정도 함께 배우려 합니다.

첫째,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고백하라 가르칩니다. 지금의 결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어려웠던 시절과 그 시절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웃으며 모여 있지만, 그 뒤에는 힘들었던 시절과 걱정했던 밤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한 손과 편 팔로 지키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오늘, 이 한마디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먼저 드리는 마음입니다. 10절은 이스라엘에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가르칩니다. 만물은 가장 먼저 거둔 열매입니다. 농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남은 수확이 얼마나 될지 알기도 전에 손에 쥔 것부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계산이 끝난 뒤에 여유를 나누는 감사가 아니라, 계산하기 전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흉년 중 마지막 양식만 남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 엘리야의 뭇부터 내어드렸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뒤가 아니라, 먼저 내어드렸습니다. 그 후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우리 가정도 형편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셋째, 나누는 마음입니다. 11절은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레위인은 가나안에서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객은 기반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이 나눔은 가장 약한 이를 잔치에 초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신 뒤, 그 감사가 반드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닿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할 가족 없는 어르신, 홀로 명절을 지내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우리 가정도 안부 전화 한 통, 나눠 담은 송편 한 접시로 그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물을 드릴 때마다 그 행하신 일들을 함께 고백하라 명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우리 가정도 강한 손으로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를 잊지 않고, 형편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그 감사를 가장 낮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가족을 위한 기도 / 대표자

➡ 찬송가 301장(통460) ♪ 지금까지 지내 온 것 1, 3절 /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장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